

서울시 7급 총평

영역	문항 번호	내용	난이도
음운론 (1문제)	3	음운의 변동	하
형태론 (4문제)	8	형태소 분석	하
	12	단어형성법	중
	14	형태소의 교체, 용언의 활용	중
	18	격조사, 접속조사 구분 문제	중
어휘론 (3문제)	1	'효'와 관련된 한자성어	중
	6	두보<곡강> 해석 + 나이관련 어휘	상
	9	한문의 해석 + 속담 연결	상
의미론 (2문제)	2	단어의 의미 관계, 상하관계	하
	17	의미의 변화 양상(확대, 이동, 축소)	중
문장론 (3문제)	4	문장성분, 관형어와 부사어 구분	중
	5	문장의 높임표현	하
	16	문장의 피동표현, 사동표현	상
문학 (4문제)	10	황동규, <즐거운 편지> 반어	하
	11	문학사, <구상 초토의 시> 동일 시대 작품 찾기	중
	13	문학사, 시대별 고전작품 순서배열	중
	15	<규중칠우쟁론기> 내용파악	상
국어사 (1문제)	19	<이응태 묘 출토 언간> 해석	중
비문학 (2문제)	7	내용일치	중
	20	빈칸 내용 추론	중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시험을 보고 오신 수험생분들이 국어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문법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태론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문제의 의도를 여러 번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문제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문제가 여럿 있어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낮은 한자성어, 문법의 예외적인 용법들이 문제로 출제되어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문학은 총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문학 자체의 문제는 4문항이지만, 어휘와 연결되어 나오거나, 문법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출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6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동규, <즐거운 편지>의 반어법은 다수 출제되었으며, 이미 여러 차례 연습할 문제입니다. '반어법을 찾으라'는 말을 '강조한 내용을 찾으라는 말'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서울시 문제가 항상 그러했듯이 문학사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학사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더욱 힘들어 했을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학사 공부를 하신다면 차근차근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문학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9급 문제는 5문항 출제). 계속해서 문학사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큼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정리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문학사 뼈대에 작품을 추가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대비 벼락치기 특강(2018), 또는 서울시 대비 특강(2018), 알집모의고사(2019)를 통해 반드시 문학사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참이 전해지길!**)

고전문학이 약한 수강생들은 3-4월 기본 고전문학을 통해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다르게 비문학의 비중의 상대적으로 작았고,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플롯'과 관련된 비문학은 기본적인 문학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야기'와 '플롯'에 대한 이론을 빈칸에 맞게 정리하는 문제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국가직을 대비하시니, 비문학은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동형모의고사에서 부교재로 모의고사 16회분이 제공되니 꼭! 모의고사를 통해 전체영역을 실천처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어문규정 문제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번 시험은 단순 암기식이 아닌, 기본적인 국어적 능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문제를 접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지나간 시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신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의 시험을 힘차게 대비하실 바랍니다. 약점을 채우시고, 강점은 더욱더 강점으로 만들어 국어에서 고득점을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정리!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응원합니다!! ^^

1. 효(孝)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아닌 것은?

- ① 斑衣之戲 ② 斷機之戒
- ③ 陸績懷橘 ④ 望雲之情

✓ 해설

낯선 한자성어가 많이 나왔으나, 여러분들은!! 마법천자문에서 다른 斷機之戒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아는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② 斷機之戒(단기지계): 맹자의 어머니가 유학 도중에 돌아온 맹자를 훈계하기 위해 짜던 베를 끊어서 경계함.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아무 쓸모없이 된다고 경계함을 이르는 말.

① 斑衣之戲(반의지희): 때때옷을 입고 논다는 뜻으로, 늙어서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

③ 陸績懷橘(육적회갈): '육적이 꿀을 가슴에 품다'라는 뜻으로, 지극한 효성을 비유하는 말이다. 중국 삼국시대의 오나라 사람 육적에 관련된 고사에서 유래했다.

④ 望雲之情(망운지정): 구름을 바라보며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객지에 나온 자식이 고향의 부모를 그리는 정을 가리키는 말.

2. 의미관계와 단어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의 관계(synonymy) - 근심:시름
- ② 반의 관계(antonymy) - 불록:오목
- ③ 상하 관계(hyponymy) - 할아버지:손자
- ④ 부분 관계(meronymy) - 코:얼굴

✓ 해설

→ 의미 관계를 찾는 문제로,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쉬운 문제입니다.

상하 관계는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위어라고 한다.

* 동물 ⊃ 개 ⊃ 진돗개
* 과일 ⊃ 사과 배 포도 귤 감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상하관계가 될 수 없으므로 ③이 적절하다.

3. <보기>의 음운 변동 사례 중 옳은 것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축약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2개 증가하였다.

- ① ㉠ ② ㉡
- ③ ㉢ ④ ㉣

✓ 해설

→ 음운의 변동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기초문제입니다.

① 앞말이 자음이고, 뒷말이 'ㅣ'모음이므로 'ㄴ'첨가되어 '집일→집닐'이 되고,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집닐]이 되므로, 첨가와 교체(비음화)가 일어났다. 음운의 개수도 1개 증가.

② 닭만[당만]→탈락, 교체(비음화), 음운 수 1개 감소
그러나 탈락만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뜻하다[뜨타다]→교체(음절의끝소리규칙), 축약, 음운 수 7개 감소
축약만 일어났다고 했으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④ 말는[만는]→교체(음절의끝소리규칙, 비음화), 음운 수 변화 없음
교체가 2번 일어난 것은 맞으나 음운의 개수의 변화가 없다.

4.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지금도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난다.
- ② 그 학생이 아주 새 사람이 되었다더라.
- ③ 바로 옆집에 삼촌이 사신다.
- ④ 5월에 예쁜 꽃을 보러 가자.

✓ 해설

→ 부사의 여러 모습을 공부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②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부사어가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아주'는 관형사 '새'를 수식하고 있으며 이때의 문장성분은 "부사어"이다.

① '체언+관형격조사'의 관형어
③ '바로'는 부사이지만, 부사가 드물게 체언을 꾸밀 수 있다. 이때의 부사는 관형어이다.
ㄱ. 바로 앞에 안내소가 있다.
ㄴ. 그 사람이 돈은 좀 있지만, 아주 부자는 아니다.
와 같은 경우이다. 즉, 이 문장은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④ '용언의 관형사형'의 관형어

7.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원론에 따르면 마음은 몸과 같이 하나의 대상이며 몸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다. 독립된 존재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라는 뜻이다. 몸이 마음 없이도 그리고 마음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실체이원론이며, 이 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 통상 데카르트가 언급된다. 기계와 이성이 서로를 배제한다는 생각은 이원론적 사고의 한 유형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그것의 크기, 무게, 부피, 위치 등의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음은 물리적 속성을 결여한 비물리적 실체이다. 이성을 가지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어떤 실체이다.

- ① 이원론은 물리적 실체와 마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겠군.
② 이원론은 몸이 비물리적 실체일 수 있다고 보겠군.
③ 이원론은 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보겠군.
④ 이원론은 몸이 없는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보겠군.

해설

첫 문장에서 이원론은 몸과 마음이 실체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 다시 한번, 서로 의존적이지 않음을 강조했다. 즉, 이원론이란 몸과 마음이 독립된 실체이므로 ③마음이 없는 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① 불가분의 관계란 나눌 수 없는 관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몸은 실체가 독립되어 있다고 말했으므로 '비물리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음.
④ 독립적이므로 가능하다.

8. 주어진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 그 요소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파김치 ② 짜입새
③ 주름살 ④ 지름길

해설

형태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단어를 의미를 가진 요소들도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었을 때"라는 것의 개념이 형태소이다.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문제이다.
② 짜입새: 짜-/-이-/-로-/-새(4개)
① 파김치: 파/김치(2개)
③ 주름살: 주름/살(2개)
④ 지름길: 지르-/-로/길(3개)

9.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과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 ① 첫술에 배부르랴.
② 내 코가 석 자다.
③ 공든 탑이 무너지랴.
④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

해설

제시된 선택지는 모두 익숙한 속담이나, 한문의 해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한자가 어렵지 않아서 한자를 조금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한자는 포기하지 말고, 꼭 기출한자 공부하셔야 합니다.
<論語>의 子路편
공자의 제자 자사가 정사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욕속즉부달, 견소리즉대사불성)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지 말아야 하니, 빨리 하려고 하면 얻지 못하며, 작은 이익을 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때가 있으므로 급해도 순서에 따라야 한다는 속담 '바늘허리 실 매어 못쓴다'와 연결된다.

10. <보기>에서 주된 표현 기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은?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① 사소함 ② 괴로움
③ 기다림 ④ 생각함

해설

이미 출제되었던 황동규, <즐거운 편지>입니다. 반어법을 묻는 선택지에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지요?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이 시의 가장 큰 표현법은 반어법이다. '그대'를 사랑하는 일이 사소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이라 비유했지만, 절대 사소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현상들이다. 즉, 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 화자가 '그대'라는 대상의 사랑의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은 ① '사소함'이 적절하다.

11. <보기>와 시대적 배경이 같은 작품은?

하꼬방 유리 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춰라.

챗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 ① 김승옥의 『무진기행』
- ② 황석영의 『삼포가는 길』
- ③ 이문구의 『우리동네 김씨』
- ④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

✓ 해설

구상, <초토의 시>과 같은 시대의 작품을 찾는 문제는 이미 기출된
→ 적이 있습니다. 다만 <초토의 시> 출처가 없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며, 해석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구상, <초토의 시 1>

6·25 전쟁이 남긴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던 시적 화자가, 비극적 현실을 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초극하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성격 : 현실적, 희망적
- * 제재 : 6·25 전쟁 직후의 상황
- * 주제 : 전란의 폐허 속에서 갖는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
- * 특징
 - 직유법을 통해 시상을 선명하게 드러냄.
 -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시적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역동적으로 시상을 전개함.
 - 시적 화자의 분신인 ‘그림자’를 의인화함으로써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 출전 : “초토의 시”(1956)

④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1960년 1월부터 7월까지 7회에 걸쳐 2부로 나뉘어 『사상계(思想界)』에 연재되었고, 같은 해 사상계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된 작품이다. 전쟁이라는 극한상황을 겪은 젊은이들의 전후(戰後)의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통하여 인간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 이 작품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전후문학사의 한 지표로 간주된다.

- ① 김승옥, <무진기행>: 1960년대
- ② 황석영, <삼포가는 길>: 1970년대
- ③ 이문구, <우리동네 김씨>: 1970년대

12. 어휘의 형성 체계가 다른 것은?

- ① 손쉽다
- ② 맞나다
- ③ 시름없다
- ④ 남다르다

✓ 해설

→ 합성의 과정에서 의미결합양상을 묻고 있는 문제이다.

- ① 손이 쉽다(주어+서물어)
 - ② 맛이 나다(주어+서물어)
 - ③ 시름이 없다(주어+서물어)
 - ④ 남과 다르다(부사어+서물어)
- 그러므로 다른 것은 ④가 적절하다.

13. <보기>의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나) 생사의 길은 /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고 / 나는 간다는 말도 / 못다 이르고 가느냐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여기 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서도 /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 아오, 미타찰(彌陀刹)에 만날 나 / 도(道) 닦아 기다리리.

(다)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라) 이화우(梨花雨) 훗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離別)혼 남
추풍(秋風) 낙엽(落葉)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千里)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흐노매

- ① (가)-(다)-(나)-(라)
- ② (가)-(다)-(라)-(나)
- ③ (다)-(가)-(나)-(라)
- ④ (다)-(나)-(가)-(라)

✓ 해설

→ 고전 문학사는 충분히 정리했기 때문에 쉽게 접근했을 것 같습니다.
고대가요 시기별로 작품순을 나열하는 문제입니다.

- (가) 정지상, <송인> - 고려 한시
- (나) 월명사, <제망매가> - 향가
- (다) 유리왕, <황조가> - 고대가요
- (라) 계량, <이화우~> - 시조

시대 순으로 나열하면 ‘고대가요 - 향가 - 고려 한시 - 시조’이므로
④가 적절하다. 필수적인 한시들은 포인트 한자를 암기해야 한다.

14.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형태소의 교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형태소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눌 수 있다. 자동적 교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교체를 말하며, 비자동적 교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는 교체를 말한다.

(가) 알-: 알+ 는→[아:는]
 (나) 안-: 안+ 고→[안:꼬]
 (다) 아릅답-: 아릅답+ 은→[아릅다운]
 (라) 먹-: 먹+ 는→[멍는]

- ① (가)는 국어에 ‘ㄹ’과 ‘ㄴ’이 연속될 때 ‘ㄹㄴ’이 함께 발음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용언 어간의 종성 ‘ㄹ’이 탈락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② (나)는 국어에 ‘ㄴ’과 ‘ㄱ’이 연속될 때 ‘ㄱ’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예외 없이 어미 ‘-고’는 [꼬]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③ (다)는 국어에 ‘ㅂ’과 ‘은’이 연속될 때 ‘븐’이 아니라 [운]으로 발음된다는 제약으로 인해 어미 ‘-은’이 [운]으로 발음되는 자동적 교체의 예이다.

✓ 해설

음운의 변동 현상, 규칙활용, 불규칙활용은 복합적으로 묻고 있는 문 → 제입니다. 문제의 의도와 <보기>를 활용했다면 시간이 오래걸리긴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① 음운의 변동에서 ‘ㄹ’탈락은 규칙적인 교체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나)는 된소리 되기(경음화)를 설명하고 있는데, 표준발음법에서 용언의 받침, ㄴ, ㄹ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을 하나, 예외적으로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가 올 때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②에서는 예외없이 일어나는 자동적 교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ㅂ’불규칙 활용이므로 비자동적 교체이다.

④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므로 자동적 교체이다.

15. <보기>의 어휘들은 통시적으로 변화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높: ‘사람평칭’→‘남자의 비칭’
 (나) 겨레: ‘종친, 친척’→‘민족, 동족’
 (다) 아침밥 > 아침
 (라) 맛비 > 장맛비

- ① (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예이다.
- ②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의미가 확대된 예이다.
- ③ (다)는 형태의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예이다.
- ④ (라)는 형태의 일부가 덧붙여진 후에도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이다.

✓ 해설

의미 변화 양상과 형태의 변화를 함께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 ④의 답 자체는 어려웠으나, 다른 선택지는 기술에서 접한 내용이라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미 변화 양상
 의미 축소: 현대를 기준으로 의미의 범위가 작아짐.
 의미 확대: 현대를 기준으로 의미의 범위가 커짐.
 의미 이동: 현대를 기준으로 의미가 전혀 달라짐.

(가)는 사람 전체에서 비하하는 의미로 범위가 작아졌으므로 ‘의미 축소’의 예에 해당한다. ①은 적절하다.

(나) ‘겨레’가 친척에서 민족 전체로 범위가 커졌으므로 ‘의미 확대’에 해당한다. ②적절한 선택지이다.

(다) ‘아침밥’이라는 단어는 ‘아침에 먹는 밥’을 의미했다. 그런데 형태의 일부(밥)가 사라진 ‘아침’이라는 자체도 ‘아침밥’을 의미한다. 즉, 전체 의미가 잔류하지만, 형태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설명인 ③은 적절하다.

(라) ‘맛비’라는 형태는 ‘장마’의 옛말이다. 선택지 ④ 전체 의미가 변하지 않은 예라는 설명을 잘못된 것이다. 원래 ‘맛비’는 ‘오래도록 내리는 현상+ 비’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갖고 있었으나 ‘장맛비’는 ‘내리는 비’ 자체만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마: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또는 그 비.
 장맛비: 장마 때에 오는 비

‘장마’가 16세기 문헌에 ‘당마ᄃᆞ’로 보인다. ‘비’와 ‘장마’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녔다. ‘오랫동안 내리는 비’와 더불어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이라는 의미도 있었다.

‘장맛비’는 17세기 문헌에 ‘당맛비’로 보인다. ‘당마ᄃᆞ’가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이라는 의미로 편향되어 쓰이면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라는 의미에 공백이 생기자 이를 메우기 위해 ‘당마’와 ‘비’를 결합하여 ‘당맛비’라는 단어를 만든 것이다.

‘장맛비’가 등장한 이후 ‘장마’는 ‘오랫동안 내리는 비’라는 의미는 ‘장맛비’에 넘겨주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현상’이라는 의미에 충실하고 있다. ‘장마’와 ‘장맛비’의 의미 분담이 분명해진 것이다.

1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하다. 진주 열 그릇이나 켄 후에 구슬이라 할 것이니. 재단(裁斷)에 능소능대(能小能大)하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작의(作衣)를 어찌하리오. 세누비 미누비 저른 술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자혀내고 교두 각시 버혀 낸다 하나 내 아니면 공이 없으려든 두 벗이 무삼 공이라 자랑하나뇨.”

- ① 서술자는 ‘세요 각시’, 즉 ‘바늘’이다.
② 자기 자랑을 하기에 앞서 타인의 공을 인정하고 있다.
③ ‘능소능대(能小能大)’는 몸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④ ‘척 부인’과 ‘교두 각시’는 각각 ‘자’와 ‘인두’를 가리킨다.

해설

<규중칠우쟁론기> 고전 수필의 해설 문제입니다. 필수 작품이므로 반드시 정리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규중칠우쟁론기> 중 세요각시(바늘)의 발언 부분이다. ① 세누비 미누비 저른 술 긴 옷을 일우미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날래고 빠르게 옷을 박는다'는 의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서로의 공을 다투는 인간의 세태를 풍자하는 작품으로 ② 서로의 공을 인정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能小能大(능소능대)'라는 말은 작은 일이나 큰일, 즉 매사에 두루 능통하다는 자신의 자랑을 하는 부분이다.
④ '척 부인'은 '자(尺)'를 의미하고, '교두 각시'는 '버혀 낸다(자른다 하나) 하나'를 통해 '가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작자 미상, <규중칠우쟁론기(閔中七友爭論記)>
• 갈래 : 국문 수필, 내간체 수필
• 성격 : 풍자적, 우화적, 교훈적
• 제재 : 규중의 일곱 가지 벗
• 주제 : 공을 다투는 인간 세태의 풍자, 역할과 직분에 따른 성실한 직무 수행
• 특징
① 인생의 단면을 극적 형식으로 제시함.
② 세태에 대한 풍자 의식이 담겨 있음.
• 출전 : <망로각수기(忘老却愁記)>
• 작가 : 미상
• 해제 : 이 글은 내간체 수필의 백미(白眉)로 일컬어지며, 조선 후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바느질 도구를 생김새와 쓰임새에 따라 구체적 인물로 의인화함으로써 각각의 성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이들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심리나 세태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 제목 의미 : 규방의 일곱 벗이 쟁론을 하는 글이라는 뜻으로, 바늘, 척, 가위, 인두, 다리미, 실, 골무가 서로 의복을 짓는데 자신의 공이 크다고 쟁론하는 이야기임.
• 출전 : <망로각수기(忘老却愁記)>

17. <보기>에 제시된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 그리고 능동문과 피동문이다. 다음 중 사동문과 피동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내가 책을 읽었다.
(나)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다) 우리가 산을 봅니다.
(라)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 ①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인 사동사와 피동사는 모두 파생어이다.
② 사동문과 피동문에는 행위의 주체에 해당되는 문장 성분이 필수적으로 제시된다.
③ 사동문과 피동문에 나타난 부사어는 각각 주동문의 주어와 능동문의 주어이다.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전환될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전환될 때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나타난다.

해설

문장 표현 중 가장 어려운 피동, 사동문제가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피동과 사동의 기본 성격을 묻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여러 번 출제되었지만, 많이 연습을 했더라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더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① 피동접미사, 사동접미사가 결합하므로 당연히 파생어이다.
② 선택지의 '행위의 주체'라는 말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나) 사동문의 동작의 행위의 주체는 '선생님께서 나에게 책을 읽히셨다.' '읽히신' 주체인 '선생님'이므로 이 문장성분은 생략이 불가능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라)문장의 행위의 주체는 '산이 우리에게 보입니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술어 '보이다'의 행위의 주체가 '산'이 될 수 없다. 보는 주체는 '우리'가 되므로 '우리에게'라는 부사어는 생략이 가능하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③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기 위해 주동문의 주어 '내가'는 사동문의 부사어 '나에게'로 변하며, 능동문의 '우리가'라는 주어는 피동문의 '우리에게' 부사어로 변했으므로 적절한 선택지이다.
④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변하기 위해 반드시 사동주 '선생님께서'를 요구하므로 서술어의 자릿수는 변한다. 제시된 (라)의 피동문도 역시 피동으로 바뀌면서 '산이 보이다'의 한자리 서술어로 변했으므로 ④서술어의 자릿수 변화는 적절한 설명이다.

18. 밑줄 친 조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인생은 과연 뜬구름과 같은 것일까
- ② 누구나 영수하고 친하게 지낸다.
- ③ 고등학교 때 수학과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④ 나와 그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

✓ 해설

→ 부사격조사와 접속조사 구분 문제는 다수 기출된 문제이며, 여러 수
업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① 비교의 부사격 조사
② 동반의 부사격 조사
③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무척 좋아했다 + 고등학교 때 영어를 무척 좋아했다 - 문장 접속 조사
④ '의지하다'라는 서술어는 함께의 의미가 있어야 하므로 '동반의 부사격조사'로 쓰였다.
그러므로 답은 ③이 된다.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현대어 해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내 상해 ㉠날드려 닐오의 돌허 머리 세도록 사다가 흙희 죽자 흐 시더니 엇디하야 나를 두고 자내 문져 가시는 날하고 즈식하며 뉘 기 걸하야 엇디하야 살라 하야다 더디고 자내 문져 가시논고 자내 날 향 히 모으물 엇디 가지며 나는 자내 ㉡향히 모으물 엇디 가지던고 미양 자내드려 내 닐오되 흐티 누어서 이 보소 늙도 우리 마티 서르 에엿헤 녀겨 스랑하리 늙도 우리 마티가 하야 자내드려 니르더니 엇디 그런 이를 칭각디 ㉢아니 나를 버리고 문져 가시논고 자내 ㉣여희고 아미 려 내 살 세 업스니 수이 자내 흐티 가고져 하니 날 드려 가소

- ① ㉠ 나를 따라서 ② ㉡ 향하여
- ③ ㉢ 아니하여 ④ ㉣ 여희고

✓ 해설

→ 고전 문헌의 해석 문제입니다. 문학을 많이 접했다면 ㉠의 답이 쉽게 도출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게'의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음은 현대어 풀이이다.

원이 아버님께 올림--병술년 유월 초하룻날, 집에서
[출제부분] 당신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희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 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 나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고 또 나는 당신을 향해 마음을 어떻게 가져 왔었나요. 함께 누우면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빠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어찌 그런 일들 생각하 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 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써서 날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 주세요. 당신 내 뱃속의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의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는 거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 아래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뿐이지만 아무리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만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 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문헌 설명: 이응태 묘 출토 언간, 또는 원이 어머니 편지는 원이 어머니가 남편 이응태를 사별하며 쓴 편지이다. 1998년 발굴되었다. 경상북도 안동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다. 순 한글로 쓰여 있으며, 16세기 국어의 형태와 조선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20. <보기>의 ㉠~㉣에 들어가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스토리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된 사건의 서술이다. (㉠)도 사건의 서술이지만 인과관계에 역점을 둔다.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는 스토리이지만, '왕이 죽자 왕비도 슬퍼서 죽었다'는 (㉠)(이)다. 시간적 순서는 마찬가지로이지만 인과의 감각이 첨가된다. 또한 '왕비가 죽었다. 그러나 왕의 죽음 때문이라고 알게 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비를 간직한 (㉡)(이)며, 고도의 전개가 가능한 형식이다. 그것은 시간의 맥락을 끊고 한계가 허락하는 한 스토리에서 비약시키고 있다. 왕비의 죽음을 생각할 때 만약 그것이 스토리가 될 경우엔 우리는 '(㉢)'하고 물을 것이며, (㉠)의 경우엔 '(㉣)'하고 물을 것이다.

- | | | |
|-------------|--------|-------|
| ㉠ | ㉡ | ㉢ |
| ① 플롯(plot) | 왜? | 그 다음엔 |
| ② 플롯(plot) | 그 다음엔? | 왜? |
| ③ 테마(theme) | 언제? | 왜? |
| ④ 테마(theme) | 그 다음엔? | 왜? |

✓ 해설

→ 기본적인 국어의 이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문학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소설 이론 "구성"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구성, 즉, 플롯(plot)은 『문학』 문학 작품에서 형상화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거나 서술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스토리는 첫째 문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시간적 순서의 배열"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에서 스토리를 설명하는 부분은 "그 다음엔?"이라는 질문이 적절하며 플롯(㉠)의 경우에는 "왜(㉢)?"라는 질문을 통해 인과관계, 유기적 배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것은 ②가 된다.